

## 12/28(화) 에스라 묵상 5

### 에스라 3:8-13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약 5개월에 걸쳐 본국인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됩니다. 3:1-6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이전에 했던 영적 준비(제단, 초막절의 회복)를 보여줍니다. 7-13절은 성전 재건을 위한 외적인 기반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성전을 위한 공급품들이 약 1년간에 걸쳐 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9절은 성전 재건을 위한 일꾼들이 모아지는데 형제들과 가족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13절은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일 때에 감사와 찬송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 영적 재건

어제 묵상한 대로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재건을 우선순위로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고전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가령,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고 어떤 시험이 들어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우리의 몸에도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그리고 육체적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전인격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육체적 질병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모두 영적인 이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고 해결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먼저 조언합니다(약 5:13,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또 가까워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 성전 재건 준비

영적 준비가 끝나고 여호와의 성전을 위한 재건 준비가 시작됩니다. 9절을 보면 성전을 위한 일꾼들이 모아 지는데 먼저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모두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 그리고, 갓미엘과 그 아들들과’ 라는 구절을 통해 성전 재건을 위해 한 형제와 온 가족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9절,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갓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그리고,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성전 재건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진행했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주를 경배하게 됩니다(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므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하지만 이 때 새 성전 지대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이 많은 노인들이었습니다(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의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음으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마도 이들은 과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들이 대성통곡을 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는 노인들이 첫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규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새로 재건된 스룹바벨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규모 면에서 더 컸기 때문입니다(스 6:3하, “..그 성전의 높이는 육십 규빗으로 너비도 육십 규빗으로 하고”; 왕상 6:2,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육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삼십 규빗이며”). 따라서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한 이유는 솔로몬 성전의 파괴를 초래한 자신들의 죄를 통곡했거나 또는 감회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인들이 운 이유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벻겔가 더이상 없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모두가 주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또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빌 2:2, 4,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골 1:18).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람이 그 중심이 될 때 그러한 교회는 인간의 생각으로 무질서가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 사역에 한 가족과 자손, 노인 등 모든 남녀노소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일부 직분자들 중심으로가 아니라 새신자들로부터 기존 신자들, 직분자들, 그리고 오래된 성도들까지 모두가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되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갖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세워져 가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난민을 위한 기도:** 유엔에 따르면 매년 평균 약 378,000 명의 중앙아메리카인이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있는 수천 명의 중앙아메리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는 국제 이민을 고려한 사람의 비율이 2019 년 8%에서 2021 년 43%로 2 년 만에 5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적 여파와 빈곤으로 인해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중앙아메리카에서 식량 불안정이 극도로 증가하였고 또한 폭력과 불안, 중앙아메리카의 심각한 가뭄과 강한 폭풍과 같은 기후 충격의 영향으로 이주 흐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앙아메리카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국가가 빈곤과 기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국제사회가 이들 국가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자.
- 3. 교회 교육부서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부서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오늘은 Youth Group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E국의 이바나바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